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5년 6월 15일

제 18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방송 잘하는 후배 격려 황금메아리상 신설

탁월한 진행 솜씨 보인 남녀 아나운서 1명씩 수상

첫 수상자 SBS 유명미 KBS 김홍성 아나운서

상반기 '황금메아리상' 하반기 '아나운서클럽상' 수여
선후배간 소통과 화합에 기여, 전통의 계승과 발전 기대



'후배 아나운서들 더 열심히 노력해 미래 방송문화의 기수가 되어 달라' 당부



황금메아리상 첫 수상자인 유명미, 김홍성 아나운서

(사) 한국아나운서클럽의 정례모임 겸 제 1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이 5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임국희(전 MBC) 회장과 황우겸(전 KBS) 고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정홍숙(전 MBC) 회원의 '조병화의 들풀이 고 싶어라' 시 암송으로 시작한 아나운서클럽의 2분기 모임은 후배들을 위한 '황금메아리상' 수여로 한층 더 빛이 났다. '황금메아리상'은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아름다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남녀 아나운서 1명씩 뽑아 격려하는 상이다.

임국희 회장은 "무섭게 야단쳐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던 예전에 비해 지금이 더 막막하지 않을까? 후배 아나운서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미래 방송문화의 기수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하고, "방송 잘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황금메아리상'을 제정했다. 1991년 시작된 '아나운서클럽상'이 모범회원에게 주는 상이라면 '황금메아리상'

은 우수 프로그램 진행사인 셈이다. 상반기 '황금메아리상', 하반기 '아나운서클럽상' 수여를 통해 더 확실하게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SBS 러브FM <마음은 언제나 청춘>(매일 오전 5시 5분 ~ 6시)의 유명미, KBS I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토요일 오전 8:30 ~ 9:30)의 김홍성 아나운서가 제1회 '황금메아리상'을 받았다.

유영미 아나운서는 "방송계의 변화 속에서 선후배간의 사랑과 결속력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님들, 감사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했고, 김홍성 아나운서는 "〈도전 골든벨〉부터 〈황금연못〉까지 '황금'과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 전직轉職도 생각했었는데, 선배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며 감격스러워 했다.

황우겸 고문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MBC 김범도 아나운서협회장이 제공한 최고급 와인을 들고 "자랑스러운 아나운서들을 위해 건강, 배려, 사랑을 담아 건배사!"라고 외쳤고, 대구에서 올라온 이후재(전 KBS) 회원은 세 번째 시집을 준비 중이라며 자작시 '행복의 계단'을 낭송했다.

이날 모임에는 임 회장, 황 고문을 포함해 박종세(전 TBC), 최만린(전 KBS), 김동건(전 KBS) 고문, 성선경(전 DBS), 김규홍(전 KBS), 이계진(전 KBS) 부회장, 김상준(전 KBS) 감사, 성경환(전 MBC) tbs 사장, KBS 이병혜(전 KBS) 이사, KBS 유애리 아나운서실장과 윤지영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MBC 김범도, febc 송옥석 협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 모임은 8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열빈'에서 열린다.

2면에 황금메아리상 수상소감

대한민국 첫 방송 터 기념식 열려

1927년 2월 16일 첫 전파 발사한 방송국 자리

서울 정동 덕수초에 유허비 세우고 매년 기념식 거행

(사) 한국방송인동우회(이하 방우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첫 방송 터 기념식이 4월 25일 유허비遺墟碑가 있는 서울 정동 덕수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한영섭 회장을 비롯한, 방우회 회원인 아나운서클럽 황우겸, 강영숙, 전영우, 박종세, 최만린 고문을 비롯한 박찬숙, 김규홍 부회장, 이혜옥, 이형균 운영위원과 황현탁 사무총장을 비롯한 문공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1927년 2월 16일 방송전파가 처음으로 발사된 서울시 중구 정동 1번지 방송 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한영섭 회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1987년 유허비 조형물을 제작한 한국조형미술의 선구자 최만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유허비 제작과정 회고담, 한류시대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바람을 담은 박찬숙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역사는 없고 순대국만 있다는 아우내 장터'를 빔대 오늘의 세태를 풍자하며 뿌리를 알고 방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전영우 수원대 명예교수의 경성방송국에 관한 특별강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만린 교문이 서울 미대 학장 재직 시 제작한 유허비 조형물



왼쪽 아랫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성선경, 김규홍, 최만린, 황우겸, 임국희, 맹관영, 정홍숙, 이형균, 이숙영, 남궁미, 서은선, 김재영, 정영희, 정연호, 김상준, 이계진, 이후재, 송옥석, 한상권, 전찬희, 박민정, 이혜옥, 황인우, 유애리, 임수민, 유명미, 이재성, 박소현, 김홍성 (직함 존칭 생략)

3분기 정례모임 8월 25일 (화) 오후 6시 30분 열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실내 빙상 경기장

- 장애인, 비장애인 스케이트 정규강습 및 개인강습(피겨, 스피드)
- 초, 중, 고 단체강습 및 CA강습
- 클럽 대관
- 일일입장

광고주 모집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제품 (ex. 유제품, 학용품... 등)

http://www.dcsports.co.kr

☎ 02-949-9114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8길 41(구)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8-1

※ 광고비는 세계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나운서클럽 MBC 상암 신사옥 견학 무선 레일 카메라와 3면 비디오 월 등 최첨단 시설 뉴스 스튜디오에 감탄



안광한 사장(오른쪽)이 회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6월 3일 콘텐츠월드 아나운서국 방문 아나운서클럽이 MBC 상암 신사옥 나들이에 나섰다.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은 6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을 방문해 안광한 사장, 김현중 편성제작본부장을 비롯해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김수정 홍보국장 등 후배들의 환대 속에 MBC 역사관, 드라마 의상과 뉴스체험관, 골든마우스홀, 뉴스센터, 아나운서실 등을 견학하고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임국희 회장이 “황우겸, 임택근, 박중

세 고문님을 모시고 클럽 회장 취임 후 첫 행사로 MBC를 견학하게 돼 기쁘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말을 전하자 안광한 사장은 “선배님들이 씨름 뿌린 방송국이 이렇게 꽃을 피웠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답했다.

차인태 부회장, 1950년대 활동한 장금

자, 윤영중, 문복순, 민병연, 김경숙 등 KBS 여성 원로, MBC 개국 멤버인 이성화, 충북 청주에서 올라온 전옥수 회원 등 아나운서클럽 회원 36명은 MBC 박찬열 보도기술부장의 안내로 무선 레일 카메라와 3면의 비디오 월 등 최첨단 시설의 뉴스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천양지차로 달라진 방송환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

다. 맹관영 회원은 대학 때 MBC 성우 1기로 뽑혀 1961년 당시 인사동 동일가구 2층에서 아나운서들과 함께 3개월 연수를 받았었다며 65년 만의 방문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MBC는 1961년 12월 인사동, 1969년 8월 정동, 1982년 3월 여의도를 거쳐 2014년 8월 4일 서울 상암동으로 이전했다.



임국희 회장, 황우겸, 임택근, 박중세 고문, 성선경, 차인태, 김규홍 부회장, KBS 여성 원로, CBS, TBC 출신 아나운서들이 반갑게 만나 MBC 신사옥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다.



제1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SBS 유명미 아나운서 러브FM <마음은 언제나 청춘> 어르신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



1986년 울산 MBC 아나운서를 거쳐 199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유명미 아나운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어르신을 위한 전문 라디오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2005년, SBS 최초로 '10년간 한 자리를 지킨 진행자에게 주는 공로상인 <The Voice of SBS>를 수상했으며, 2000년에 노인학 석사학위를 받고 2010년 3월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저서 <두 번째 청춘(2010년, 시공사)>을 펴낸 노인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또한 2011년 12월 30일 <SBS 12시뉴스>를 끝으로 앵커 자리에서 내려와 17년간 최장기, 50세 최고령 여성 앵커 기록을 남긴 바 있고, 작년 12월 SBS 아나운서실 최초로 여성 부장 발령을 받았다. 2003년 한국아나운서클럽상, 대한은퇴자협회 공로상을 받았고, 대한법률공단 이사, 외국어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고맙습니다! <황금메아리상>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뜻밖에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기쁩습니다. 전 사실 상복이 좀 없는 것 같아 마음 두지 않고 대신 '일복도 복이니 즐겁게 방송하자!'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누군가는 알아준다'는 그 진실이 제게도 통했나 봐요.

언제나 예리한 매의 눈으로 방송계 전반을 살피시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 선배님들이 주시는 상이라 더욱 고개가 숙여집니다.

'시니어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의 방송모토입니다. 지난 20년간 유명미의 청춘도 <마음

은 언제나 청춘>과 함께했지요. 30대 초반에 <청춘> 진행을 맡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전 주니어, 기쁨 주고 사랑 받는 어여쁜 후배였답니다. 그런데 세월은 어느덧 저를 시니어라 하네요. SBS 아나운서팀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 아나운서는 없으니 말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유명미 진행 20년 기념 청춘 콘서트>를 공개방송으로 만들었어요. 1994년 이 프로를 처음 맡았을 때 전 임신 중이었거든요. 방송이라는 것이 늘 공기와 같아서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청춘 20주년에는 딱 20살 청춘이 된 딸이 나와 어르신들께 인사를 해서 격려의 박수도 많이 받았답니다. 특히 1991년 개국 당시 프로그램을 맡

아 4년간 진행한 1대 MC인 존경하는 변순복 선배님도와 주셔서 더욱 고맙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지요.

청춘은 빛나지만 시니어는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아름답게 나이드는 것이지요. 아나운서클럽에서 뵈게 되는 우리 선배님들은 언제나 저희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선배는 앞서 가는 인생의 길이기니까요.

아나운서 30년, <청춘> 진행 21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기쁘게, 좋은 시니어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귀한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KBS 김홍성 아나운서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 신설 프로그램들을 성공리에 안착시킨 공로



1995년 공채 21기로 입사한 김홍성 아나운서는 지난 1월부터 가예란 아나운서와 함께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을 맡아 노년의 다양한 인생과 삶의 지혜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1998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진행한 <도전 골든벨>을 비롯해 2005년 <감성 매거진 행복한 오후>, 2008년 <활력 충전 530>, 2009년 <리빙쇼 당신의 여섯 시>와 <5000만의 아이디어>, 2010년 <행복한 교실>, 2015년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 등의 MC로 발탁되어 유쾌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신설 프로그램들을 성공리에 안착시켜왔다. 현재 <TV비평 시청자데스크>, 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를 맡고 있으며, 2004년 교육부장관상, 2008년 대한민국아나운서대상 TV진행상, 2013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처음 제정된 이 상을 훌륭한 동료들을 제쳐두고 제가 가져가는 것은 얼굴이 무척 두꺼워야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며 수상에 임하는 것은 이 상에 선배님들의 크나큰 격려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라는 직함을 단 지만 20년 4개월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법과 방송용 말씨로 적합한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어울리는지 스스로 검열하느라 마치 어눌한 환자 처럼 지냈던 신입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것은 선배들이셨고 저의 교과서와 참고서는 선배

님들의 방송이었습니다.

그 덕으로 <도전 골든벨>을 태동시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7년간 진행했고 신설 주부대상프로그램인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후>와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를 각각 만 3년씩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니어토크쇼 황금 연못> 역시 새로 만들고 동시에 투입이 되어 동시간대는 물론이거니와 토요일 지상과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항상 10위 안에 드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김홍성에게!'라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선

배님들께서 주신 이 '황금메아리상'을 보겠습니다. 이 상은 신입사원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준엄한 채찍질이며 선배님들의 미려하고 정갈한 방송과 '한국 아나운서 역사에 누가 되지 말라'는 깊은 애정의 경고장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대로 말은 바 책무와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으로 선배님들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기쁨과 영광을 주신 아나운서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대석 김영우(전 MBC)

미주 한인방송 50년 역사의 첫 장을 연 개척자

LA 잉글우드에서 1965년 6월 12일 30분간 전파 빌려 최초의 우리말 방송 <라디오 코리아> 송출

미국인민 100년사 연표에는 '1965년 처음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방송, 아나운서 김영우, 1975년 Radio Korea 첫 방송, 아나운서 김영우'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영우 아나운서는 한국어 일간지도 없던 1965년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 잉글우드의 KTYM FM(103.9Mc)에서 방송된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 한국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드러내며 미주 한인방송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미주 한인방송 50주년을 맞아 정영호(전 KBS) 미주 편집위원이 김영우(전 MBC) 회원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미주 한인방송의 초석을 놓은 지 50년, 얼마나 감개무량 하시겠어요!

그 추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5년 6월 12일 토요일 아침, 그림던 우리말 방송이 이제 이곳 미주에서 드디어 역사적인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것처럼 듣고 싶었던 우리 음악, 이제 미국의 상공을 메아리치며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합니다.”라는 오프닝멘트가 우리 이민사移民史에서 최초로 시도한 우리말 방송 <라디오 코리아>였습니다.

1961년 4월 원종관, 이장우, 박진현, 장인숙 등과 함께 MBC 공채 1기 아나운서로 뽑혀 뉴스, 음악 프로그램 진행, 권투중계 견습 등을 하다가 1963년 6월에 콜롬비아방송대학으로 유학 가 1964년 2월부터 만화영화사에서 배경을 그리며 아르바이트도 하던 때였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짧은 경험으로 타국에서 맨주먹으로 방송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한인회의 여장부 소니아 석 여사의 헌신과 기술을 맡아준 친구 이순재(Joh Lee), 그리고 둘째 주부터 참여한 서정자 현 시애틀 라디오코리아 사장 등의 도움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미주한인인민사에 <라디오 코리아>가 자랑스러운 한국어 첫 방송으로 기록, 보존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계기로 한국어 방송을 추진하게 되었나요? 그 때 방송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연히 일본어방송을 접하고 자극을 받아 '한국어방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지요. 그래서 미8군 AFKN-TV 엔지니어 출신으로 로올라 기독교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친구 이순재(Joh Lee)를 만나 상의한 후 남가주 한인회 섭외 이사였던 소니아 석 여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2주 후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석 여사가 잉글우드의 KTYM 방송국에 회당 30달러의 전파료를 내기로 하고 토요일 오전 30분 방송을 계약했으니, 3일 내로 방송 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재가 로올라방송국에서 녹음 허가를 받기로 하고, 저는 MBC에서 복사해온 녹음테이프 몇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작 준비에 들어갔지요. 아리랑을 시그널뮤직으로 <라디오 코리아> 개국 고지에 이어 안광수 LA 총영사, 조영삼 남가주 한인회장의 축사 사이사이 <대한 팔경>과 <번지 없는 주말> 등 음악으로 엮어진 28분짜리 <라디오 코리아>란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인 6월 12일(토) 로올라방송국 정규방송이 끝난 새벽 1시부터 철야 제작에 들어갔는데, 다 끝마친 시각이 6시. 익숙하지 못해 4시간 넘게 걸린 겁니다. 부랴부랴 석 여사의 차로 잉글우드의 방송국으로 이동해 방송 개시 10분 전에 녹음테이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30분간, 미주 최초의 한국어방송 '라디오 코리아'를 무사히 송출하고 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소수소수지만 방송을 들은 교포들이 '미국 이민 온 후 처음

으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들으니 설레고 기뻐다. 처음 들어보는 우리말 방송에 감격해 눈물이 나왔다.'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 방송부터 대학에서 만난 KBS 성우 출신 서정자 씨가 합류해 공지사향, 시, 소설 등을 낭독하니 훨씬 부드럽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MBC 엔지니어였던 김세대 씨와 KBS 국제방송 서선벽 아나운서도 도와주었지요. 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11개월간 지속되다가 1966년 5월 49회를 끝으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숲속에 세워져 새소리만 들리는 덴빌의 양로원에서 산책 중인 김영우 회원

한인방송의 주역으로 이역만리 동포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50년간 쓰던 방송장비 USC에 기증하고 은퇴

그 후로도 한인방송을 뿌리내리고자 애쓰셨지요?

한국일보 LA지사 장재구 사장과 인연을 맺으며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 16일(월) 'TV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KVST TV(ch68)를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맹경원(전 DBS) 아나운서와 함께 앵커를 맡아 최초의 TV 생방송을 실시했고, 1975년 10월 12일(토) 한국일보 미주 본사가 설립한 '라디오 코리아'에서 방송을 재개, KTYM AM(1460Kc)을 통해 매주 토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인방송 최초로 AM 전파를 쏘아 올렸고 이것이 지금의 '라디오 서울'로 이어졌지요.

15년간의 만화영화 일을 접고 1978년 11월 미주 한국일보에서 설립한 '한국 TV'와 '라디오 한국'의 방송국장으로 발령받아 1979년 6월 11일(월) KMAX FM(107Mh)을 통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6일, 최초의 우리말 FM 매일 방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1991년 2월 '한국 TV' 방송을 재개하고 그 해 5월 6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를 위성 생중계했고, 1990년 2월 한국일보가 MBC와 제휴해 설립한 KTAN TV(현 KTN)의 부사장으로 뉴스, 연속극, 교육 등으로 정규방송을 편성하고 방송 실무를 총괄하다 2001년 퇴직했습니다.

그 후 프로덕션을 설립해 <오늘의 신앙> TV방송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 이민 1세대 노인들의 이야기, 위대한 한인, 미국의 자연 등을 비디오에 담아왔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재미동포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자랑스런 한인들> 수상자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또 1974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월에 남가주 미스코리아와 주니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1975년부터 1991년까지 16년간 9월에는 한국의 날 행사 피날레인 코리안 퍼레이드의 사회를 맡았던 것, 그리고 1977년 미주방송인협회 창설을 주도해 3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지요.

그러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 작년 2월 12일, 이역만리에서 동포들의 애환을 달래 주던 방송의 역사를 남기고자 50년간 쓰던 방송장비를 미국의 USC(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동아시아도서관에 기증하고 방송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근황은 어떠십니까?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931년생이니 올해 86세입니다. 최근 저의집 사람까지 건강이 양호하지 못 하자 아이들의 권유로 지난 4월 둘째 딸이 사는 북가주 덴빌로 이전했습니다. 브룩데일 양로원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아시아인은 저희 부부뿐입니다. 덴빌을 지나 콩코드에서 1시간 더 북상하면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나파밸리가 나오지요.

이제 양로원 생활이 적응이 되어 취미활동으로 그림도 그립니다. 만화영화사에서 배경을 그렸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영도 받았습니니다. 몸만 건강하면 흥익대 미대 서양화와 출신답게 그림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건강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민사移民史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마무리하고 싶은 의욕뿐입니다.

그동안 <자랑스런 한인들>의 비디오 회고록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동료와 후배들, 김봉구 회장, 이민희 이사장, 민병용 사장, 변홍진 회장, 그리고 이병훈, 김홍수, 또한 로버트 김 등 모두 고맙고, 특히 춘추동방 방송의 이장춘 국장, 한국아나운서클럽 황인우 편집장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미주 한인방송 개척자가 본국의 권위 있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에 실린다고 하니 영광입니다.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 정영호(전 KBS) 미주 편집위원



미주통신 미주방송인협회 제24대 민병국 회장 취임

미주방송인협회 제24대 회장에 전임 김정수 회장에 이어 민병국 회장이 선출되었다.

민병국 회장은 2월 14일 LA 로텍스 호텔에서 열린 미주방송인협회·취임식에서 “친목 모임에서 나아가 봉사하며 선후배도 돕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1977년 창립한 미주방송인협회는 현재 130여 명의 남가주 회원을 비롯해 27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앞으로 미주 한인 로컬 방송의 모니터링 센터 운영, 10

여 개 남가주 지역 한인회를 방문해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토크 콘서트 개최, 남가주를 순회하며 노인회와 주민 상대로 '장수무대와 노래자랑'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민병국 회장은 4월 22일 오전 11시 30분 LA한인회관에서 열린 LA한인회 광복70주년 범동포 행사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 ▶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광진 부회장, 김진국 자문위원, 김홍수 이사, 이병훈 이사, 박양중 이사, 정진철 이사, 이춘자 자문위원, 김봉구 명예회장, 민병국 회장, 김미영 부회장, 전임 회장 김정수 이사



지방국 아나운서의 현실, 위기인가? 기회인가!

- 광주MBC 김귀빈 아나운서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 전국을 돌며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혹자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아나운서는 방송국 권력 서열에서 밀려나 있으니 기자나 PD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는 내 귀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온 광주MBC.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꺾등으로 흘러버렸던 모든 얘기들이 방송국을 들어오니 현실이었습니다. IMF 이후 지역 방

송국에서 아나운서 부서는 없어지고 있었고, 아나운서들의 고용 상태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나운서라는 뿌듯함으로 자존감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라디오, TV 진행은 물론 뉴스 앵커 그리고 라디오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맡겨졌습니다. 라디오 PD 역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 없었기에 아나운서가 라디오 제작과 진행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지역 방송국에는 자리 잡기 시작했고, 특집 기획에 심지어 제작비를 외부 펀딩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던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런. 데. 말입니다! 해가 갈수록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작을 하

보니 원고를 적극적으로 수정하거나 직접 쓰게 되고, 외부 취재를 나가 섭외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편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작과 진행을 모두 할 수 있는 아나운서. 모두가 아나운서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지역은 더 힘들었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지역방송의 라디오 제작은 거의 아나운서들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제작의 능력을 인정받아 방송대상을 포함한 각종 상을 아나운서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를 비롯해 춘천, 강원영동, 충주, 전주, 목포, 경남, 제주 등 지역 MBC 8개사가 공동기획으로 인문학 강의 <살신성인-살아서 신선이 되는 법, 인문학>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사에서 5강씩 만들어 40강을 방송으로 공유하기로 하고 한창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경남MBC 정은희 PD 외에 저, 춘천MBC 이승현, 강원영동MBC 김상호, 충주MBC 구본상, 전주MBC 김예슬, 목포MBC 이지선, 제주MBC 지건보 모두 아나운서 직분입니다. 저는 5월 넷째 주까지 소설가 이화경의 강연과 팝페라 공연으로 엮은 '슬픔이여 안녕' 4부작을 제작하느라 올 봄을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나운서의 전통과 선후배의 끈끈함, 우리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송의 품위 있는 진행은 아나운서의 고유 영역이자 지켜나가야 할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제작을 덧붙입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의 중심에 선 업그레이드 된 아나운서! 지역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입사 TV <생방송 빛날> MC <주말 뉴스데스크 전남광주> 앵커 R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PD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건보, 정은희, 김예슬, 박지선, 이승현, 김귀빈

방 | 송 | 가 | 소 | 식



아나운서실장 유애리 임명 아나운서부장 정용실 스포츠팀장 이재홍



4월 1일자로 아나운서실장에 유애리(왼쪽 사진), 아나운서1부장에 정용실(가운데), 스포츠 팀장에 이재홍 아나운서가 각각 임명되었다. 유 실장은 1981년 공채 8기로 입사해 한국어연구부장과 제주방송총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 부장은 1991년 공채 18기로 입사해 현재 2TV <추적 60분>과 1라디오 <생방송 오늘 정용실입니다>, 1998년 공채 25기로 입사한 이재홍 팀장은 <TV쇼 진품 명품>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말 동영상 유튜브 등 통해 방송

KBS 아나운서가 기획·제작·출연하는 <착하지 않은 아나운서들> 바른말 동영상 이 네이버 TV캐스트, 다음 TV팟, 유튜브(MyloveKBS)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5월 13일 공개된 '전화상담' 1, 2편에서는 박주아 아나운서가 잘못 쓰는 말을 바로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직업병'을 표현했다.

5월 21일 공개된 3편 '특별한 중계 1' 'PC방'은 강승화 아나운서가 중계, 서기철 아나운서가 해설자로 등장해 외계어를 풀이해준다.

5월 27일에는 정다운, 이슬기, 오정연 아나운서가 안무가에게 춤을 배우는 4편 '댄스 스쿨'에 이어 6월 5일 최승돈 아나운서가 중계, 서기철 아나운서가 해설위원으로 등장하는 5편 '특별한 중계 2' '출입말'이 공개되었다.

배창복 '바른방송언어상' 수상 공영 방송의 신뢰와 품격을 높인 공로

배창복 아나운서(사진 아래 왼쪽)가 <20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바른방송언어상'을 수상했다.

4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배창복 아나운서는 2000년 공채 26기로 입사 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을 통해 공영방송의 신뢰와 품격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KBS이사회 공영방송 발전방안 세미나

KBS 이사회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KBS 국제회의실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KBS의 현실' 세미나를 열고 공영방송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26일 오전 9시 30분 이병혜 이사 사회로 열린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 KBS의 현실 진단'을 시작으로 '방송환경의 변화와 KBS의 대응전략', 27일 '국가기간·공영방송의 책무와 방송제작의 독립성', '방송의 품격과 공공성 강화방안', 28일 이인호 이사가 직접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회까지 3일간 대화마당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KBS 아나운서실장을 지내고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연예과 초빙교수인 아나운서클럽 김상준 감사가 '방송의 공공성과 언어문제'를 다루어 관심을 모았다.



아나운서국 대폭 인사 단행, 대거 승진



이윤재 부국장 이재용 부국장 황선숙 부장 하지는 부장



김미정 부장 최대현 차장 이정민 차장 김정근 차장

5월 6일 아나운서국에 대거 승진 소식이 있었다.

이윤재 부장, 이재용 1부장이 부국장으로 승진했고, 황선숙 아나운서가 부장대우에서 부장, 하지는 2부장 부장대우가 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김미정 차장이 부장대우로 승진했으며, 최대현, 이정민 아나운서가 차장대우에서 차장, 김정근 아나운서가 차장대우로 승진했다.

한편 손정은 아나운서가 1년 8개월의 휴가를 마치고 5월 11일 복귀했다. 손 아나운서는 1년간 미국 어반대학교(Auburn University)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언론을 공부한 후 작년 7월 말 아들을 출산했다.



2015 MBC 아나운서 낭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5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MBC 상암 신사옥 골든마우스홀에서 <바로, 당신!>이라는 공개 낭송회를 열었다.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맞춰 전날인 14일 개최한 낭송회에서는 <우리말사랑 노래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6곡의 당선작이 축하 공연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최영주 처음으로 DJ 맡아

최영주 아나운서가 5월 4일부터 <스위트 뮤직박스(103.5 리브FM 매일 저녁 8시 30분~10시)>를 진행한다. 최 아나운서는 "1기로 입사해 많은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DJ는 처음이다. 청취자에게 위안이 되는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DJ 박은경 아나운서는 남편인 이명수 PD의 해외연수에 맞추어 6개월간 휴가를 내 함께 미국에서 연수를 할 예정이다.

최혜림 출산휴가 후 복직

2007년 입사한 14기 최혜림 아나운서가 5월 1일 복직했다. 최 아나운서는 <주말 8시뉴스> 앵커를 하다 작년에 둘째를 낳고 6개월의 출산휴가 후 복직했다.



신임 사장에 PD 출신 한용길 선임



5월 1일 신임 사장 선거에서 CBS 직원 출신 10명과 외부인사 3명의 지원자 가운데 한용길(52세) 조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선임되었다. 한용길 사장은 라디오 편성국장 시절 음악FM의 청취율을 4배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5월 1일 신임 사장 선거에서 CBS 직원 출신 10명과 외부인사 3명의 지원자 가운데 한용길(52세) 조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선임되었다. 한용길 사장은 라디오 편성국장 시절 음악FM의 청취율을 4배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5월 <CBS 러빙유 콘서트>

5월은 <CBS 러빙 유 콘서트> 진행으로 바쁜 달을 보냈다. 1일에는 김덕기 아나운서가 군포에서, 10일 화성과 구리 행사는 김은영, 백원경 아나운서가 각각 투입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신지혜 아나운서는 6월 4일 야의 공연장인 아트라운지에서 내팔 대지진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신지혜의 사랑에 관한 OST>를 열었다.



우리말 세미나 겸 단합대회 개최

우리말 세미나 겸 단합대회가 6월 6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렸다. 아나운서부원들은 방송언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후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bs창사 25주년 특집 대담 편성

황원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tbs전망대가 tbs창사 25주년을 맞아 특집 대담 '로컬리티 通(통)하다'로 대체 편성되었다. 새로운 미래 콘텐츠 전략으로서 tbs 지역성 강화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공익방송으로서 tbs만의 특화된 역할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5월 한 달간 오픈 스튜디오 운영

방송현장을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청취자들을 스튜디오(사진: <장용최지은의 4시를 잡아라>)로 초대했다.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뒤 청취자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한구 아나운서 부장 발령



5월 11일자로 조한구 아나운서가 부장 발령을 받았다. 1992년 1월에 입사한 조 부장은 라디오 <기쁜 소식 밝은 세상>(오전 5시~6시)을 제작·진행, <라디오 피정>(일 오후 10시~자정)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입사한 김부궁 아나운서가 5월 15일 창립 27주년 기념미사에서 장기 근속 포상을 받았다.

5월 11일자로 조한구 아나운서가 부장 발령을 받았다. 1992년 1월에 입사한 조 부장은 라디오 <기쁜 소식 밝은 세상>(오전 5시~6시)을 제작·진행, <라디오 피정>(일 오후 10시~자정)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입사한 김부궁 아나운서가 5월 15일 창립 27주년 기념미사에서 장기 근속 포상을 받았다.

'신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봄 개편

4월 20일 봄 개편을 맞아 신자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본당 독서·전례단이 성경 봉독에 참여하는 <라디오 성경>은 김현주, 본격 상담 프로그램인 <라디오 신앙상담, 따뜻한 동행>은 김부궁, 교회소식과 신앙상식퀴즈가 있는 <행복을 여는 아침>은 김지현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한편 객원 이정민 아나운서가 선발되어 라디오 <음악이 있는 저녁풍경>(오후 5시~7시)과 <라디오 피정>의 진행을 맡았다.



김준호 세계 낚시대회 첫 중계

4월 3일 금요일 밤 11시 5분, <프리미어 스포츠포싱 FLW>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프로낚시리그인 FLW(Fishing League Worldwide)는 북미와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규모 미국 프로 스포츠 중의 하나로 김준호 아나운서가 개그맨 염경환, 낚시 전문가 레이먼 김과 함께 중계를 맡았다.



김준우 OBS컵 배드민턴대회 중계

5월 16일과 17일, 수원 만석공원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4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OBS컵 전국배드민턴대회> 주요 경기를 5월 22일에 김준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녹화 중계했다.

강미정, 김하나 아나운서 휴직

강미정, 김하나 아나운서가 혼인을 계기로 4월 1일부터 1년간 휴직에 들어갔다.



창사특집 <코리아 바이블로드> WCBA 라디오 부문 우수상 수상



극동방송 창사 기념 다큐멘터리 <코리아 바이블로드>(사진: 왼쪽부터 공동제작한 장대진, 김경화, 양현민 아나운서)가 4월 20일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WCBA의 라디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WCBA는 민산극동방송 전 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송옥석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수상

송옥석 아나운서가 탈북청소년 특집다큐 <그래도 자유가 좋았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다.

한미동맹 주제로 극동포럼 개최

5월 19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히에서 열린 극동포럼에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국연합사령관이 '함께 가는 한미동맹: 미래를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부처님 오신 날 풍성한 특집방송



올해도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방송이 풍성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동국대학교와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연등회와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라는 주제로 전 세계 종교인들과 불자들 30만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널리 알린 세계 간화선 무차 대회(사진)를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했다.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8

요즈음도 아나운서는 표준발음을 지킵니다

장단음과 띄어 읽기는 발음의 편리성 기능도 있다



언어에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양면성이 있는 바 음성언어로서 한국어의 특징은 '장단長短 악센트' / '고저高低 악센트' 언어이므로 아나운서 세계에서는 장단음을 자고저字高低라고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의 강약약 강 약약약 강약약 강 약약 첫 방:문국인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강 강 약약약 강약약약약 강 약중약약약

소리의 높이와 길이를 분석하는 전자음향분석기기인 Visi-Pitch6087DS에 입력했을 때 가정해본 도표이다.

대:/사:/순:/방:/도:/했:(장음의 음절에 악센트가 붙음) 6음절의 장단 악센트에 박/중/첫/몰/(무거운 음절에 악센트가 붙음) 4음절의 고저 악센트가 가세하여 장단(리듬)과 고저(멜로디)가 어우러지면서 유려한 아나운서의 원동력이 되어준다.

아나운싱 전 방송 원고의 표준발음을 검토할 경우, 위 문장에서처럼 90% 이상이 장음으로 실제 방송 현장에서 장음의 존재

는 표준발음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장단음의 기능은 1) 의미의 변별력 2) 품위, 음악성 이외에도 띄어 읽기와 더불어 3) 발음의 편리성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아나운싱의 기준으로 대별하면 1그룹) ①스트레이트 뉴스: 5분(단거리 뉴스), 10분(중거리 뉴스), 15분 이상(장거리 뉴스, 15분 뉴스는 5분 뉴스의 3배 이상 힘들다) ②중계방송 ③내레이션 ④수필 낭독 / 시 낭송 2그룹) ①앵커뉴스 ②MC의 애드리브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아나운싱의 기법상으로 볼 때 1그룹이 2그룹에 비해 월등하게 어렵다.

아나운서 실기시험이 구태의연(?)하게 '스트레이트 뉴스'인 이유는 21개 모음의 다양한 음가音價를 지키면서 속도감 있는 독력讀力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계방송이 서예에서 서법書法을 다소 벗어난 흘림체 초서草書라면 뉴스는 서법에 철저한 반흘림체 행서行書에 비유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신군부시절 보도본부의 모 보도위원이 12시 마라톤 뉴스를 담당

한 바 있으나 1주일을 채우지 못 하고 하차하였다. 한 화가의 실력을 대생력으로 가늠할 수 있듯이 아나운싱의 수준은 스트레이트 뉴스로 확인된다. NHK 아나운서 교육에서 '스트레이트 뉴스'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뉴스캐스터 양성 목적이 아니라 각 분야 아나운싱의 대생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즉 '읽기는 완성도 있는 '말하기', 애드리브를 위한 전 단계이다.

현 방송가에는 ㄱ) 현역 아나운서 ㄴ) 아나운서 출신 프리랜서 ㄷ) 비프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ㄷ) 그룹의 방송인 중 극소수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내레이션 프로그램조차 듣기 힘들다. 글씨를 쓸 줄 안다고 서예가가 될 수 없듯이 우리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MC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나운싱의 기법상 고난도高難度의 중계방송과 뉴스 방송을 평생 해도 무명 방송인으로 남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MC는 1년 전후의 시간이 지나면 신분 상승의 저명인사가 보

장되니 모든 방송인이 이 분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즈음 아나운서들이 표준발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질책성 발언을 주위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다. 이는 과거의 아나운서들에 비해 국어사랑에 철저하지 않다는 뜻과 아나운서의 본령을 떠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 아나운서에 대한 아쉬움으로 생각된다.

발음을 편리하게 해주는 작용 원리를 가진 표준 장음長音을 지키지 않는 아나운서/방송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7음계가 사라진 음악계의 성악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장단음을 도외시한 아나운서의 존재이유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방송국 직원 중 엔지니어와 행정직을 제외한 PD와 기자 누구인들 방송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대는 세분화된 전문화시대가 아닌가. 아나운서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송풍토에서 아나운서의 존재는 영원할 것이다.



회 | 원 | 동 | 정

〈아침마당〉 출연 청춘합창단 UN 공연 소개



조석영(전 MBC)

청춘합창단의 대표 테너로 6월 10일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15일)을 맞아 주유엔한국대표부 후원으로 펼쳐지는 미국 순회공연에 대해 소개했다.

권대옥 단장 등 50여 명의 참가자는 12일 출국해 대한민국의 통일과 세계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 시각으로 16일 오전 7시 30분 UN본부(<http://m.webtv.un.org>)에서 공연한 후 뉴욕 플러싱과 워싱턴을 거쳐 20일 귀국한다.

청춘합창단은 2011년 KBS 2TV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계기로 구성된 시니어 합창단으로 조석영 회원은 메조소프라노인 부인 박찬열 여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대변인으로 활약



유지현(전 SBS)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의 해의 언론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변인을 맡아 국내외 언론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1991년 12월 SBS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유 회원은 2001년 휴직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으나 체류가 길어지며 2003년 퇴사하고 뉴욕에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석사와 국제회의·이벤트 매니지먼트 자격증을 받았다.

그 후 월드클처오픈, 아시아소사이터티 등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MBC 뉴욕 지사에서 〈투데이 세계경제〉, SBS CNBC 뉴욕특파원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글로벌 경제 뉴스〉를 진행했다.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예능상 수상



전현무(전 KBS)

5월 26일 오후 9시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JTBC로 생중계한 제5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jtbc 〈비정상회담〉, MBC 〈나 혼자 산다〉로 TV부문 남자 예능상을 받았다.

전 회원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KBS에서 활동하고 프리랜서 선언 후 연예오락 MC로 활약하고 있다.

국회 잔디광장에서 차인연합회 축제 개최



전우벽(전 KBS)

(사)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홍) 사무총장으로서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하는 팔도 차문화 큰잔치를 주최했다. 운현궁에서 국회로 자리를 옮겨 펼쳐진 이번 축제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차인들이 참석해 국회의원, 시민들과 마주 앉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TV조선 〈내 몸 사용설명서〉 MC 맡아



박나림(전 MBC)

작년 12월부터 TV조선 건강정보쇼 〈내 몸 사용설명서〉의 패널로 활약하다 5월 9일부터 남희석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박 회원은 1996년 입사해 〈주말 뉴스데스크〉, 〈생방송 화제집중〉 등을 진행하다 2004년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해왔다.

역사의 조난자 돕는 활동으로 유관순상 수상



박선영(전 MBC)

3월 20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이혜훈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이화여고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와 국군포로를 위해 (사)물망초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로부터 제14회 유관순상을 받았다.

한편 박 이사장은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정기총회에 이어 시 낭송대회, 합창단 공연, 출판기념회 등으로 진행된 2015년 물망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또 통일 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5월 26일 발족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이사로도 위촉되었다.

부인의 난치병 한방 치료 위해 인천 이사



이정부(전 KBS)

'눈꺼풀연축'이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 서금람(전 KBS) 회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6월 9일 인천 간석동으로 이사했다.

최근 40년 만에 고교 동창생인 인천 나사렛한방병원 이강일 원장을 만나 한방 치료를 권유받고 차도가 있어 병원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리디체아카데미 6주년 기념식 열여



정흥숙(전 MBC)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선병철 지도교수와 함께 클래식 DVD 콘서트 유리디체아카데미(02-409-0882)의 창립 6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손경자 세종대 명예교수, 함수일 전문직업여성클럽 전 회장, 박성혜 라무즈 아카데미 회장, 김성희 수필가, 최동욱 DJ, 아나운서클럽 김재익, 이혜옥, 황인우 회원 등 75명이 참가하고 바리톤 임준식이 축하를 선사한 이날 정흥숙 회장은 "고전음악과 인문학의 세계에서 정서적 공감대를 나누며 아름다운 삶의 빛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소망하는 바를 알차게 채워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나도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출간



김상근(전 KBS)

KBS사우회보에 연재한 유머에 관한 컬럼을 토대로 방송실수담, 정치 유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묶어 4월 25일 〈나도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도서출판 미래지식)〉를 출간했다.

2011년에 〈유머커뮤니케이션(내하출판사)〉 펴낸 바 있는 김 회원은 개그맨 김준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MBN 프로그램 〈울엄마〉 진행



황인용(전 TBC)

3월 29일부터 MBN의 〈울엄마〉를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 추억의 라디오 방송 〈황인용, 강부자입니다〉처럼 시청자의 편지를 읽어주며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황 회원은 SBS TV 〈생활의 달인〉 내레이션도 맡고 있다.

영상자서전 제작 교육과정 청춘대학 졸업



김규홍(전 KBS) 부회장

KBS사우회와 KT가 공동 주관하는 청춘대학, 영상자서전 제작기법 컴퓨터교육 특별과정을 이수했다.

4월 13일 시작한 5기의 학회장을 맡았던 김 부회장은 6월 2일 KBS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앞으로 재능 나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개설 이래 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청춘대학에는 이인숙 회원이 2기, 이재봉 회원이 3기, 황량 편집위원이 4기로 이수했다.

세계물포럼 초청으로 대구에서 사진전 개최



박찬숙(전 KBS) 부회장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조직위 초청으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 1층 전시장에서 특별 사진전을 열어 물과 어우러진 빛과 시간의 변화를 포착한 27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현재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월~금 오전 7시~8시 30분) 생방송을 진행하는 박 부회장은 2011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해 두 차례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연 사진작가이다.

스카이스포츠 프로야구 중계



임경진(전 MBC)

올 봄 프로야구 중계 채널로 선정된 스키이스포츠에 4월 초순 김진욱 해설위원과 함께 신규 영입되어 〈한국 프로야구 2015〉의 중계를 맡고 있다. 임 회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하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서 런던올림픽,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본프로야구를 중계해왔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진행



박혜진(전 MBC)

3월 7일부터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의 화제의 저자를 초대해 깊이 있는 인문학적 사고의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01년 입사한 박 회원은 〈뉴스데스크〉, 〈생방송 화제집중〉, 〈줌인 게임 천국〉 등을 진행하다 2015년 1월 퇴사했다.

〈EBS 부모〉 요일별로 주제, 진행자 바뀌어



오영실(전 KBS)



최은경(전 KBS)



이지애(전 KBS)

3월 2일 EBS 봄 개편에 따라 신설된 토크쇼 〈EBS 부모〉에 오영실, 최은경, 이지애 회원이 MC로 발탁되었다. 월요일 '고수다'는 오영실과 박수홍, 화요일 '놀라운 데이터'는 최은경, 수요일 '그녀의 품격'은 이지애 회원이 맡았다.



Zoom - in 서울 정심초등학교 교감 채영신(전 KBS) 회원

늘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더니 얻은 게 많네요

교사 출신 아나운서는 많지만 아나운서 출신 교사는 흔치 않고, 아나운서클럽 회원 중 대학 강단에 서는 이는 많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오직 한 사람뿐.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정심초등학교를 방문해 교감으로 재직 중인 채영신(전 KBS) 회원을 만나보았다. 금천구문화체육회관 뒤, 독산자연농원과 이어지는 3000여 평의 생태체험관이 인상적인 정심초등학교에서 채영신 교감은 한층 더 푸르러 보였다. / 편집장 황인우(전 KBS)

오는 8월 정년퇴직을 앞둔 터라 이번 스승의 날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셨어요?

방송처럼 곧바로 반응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르친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고 성공하고 한 것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이들이 결실이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나운서 생활을 접긴 했지만, 늘 배움의 길을 두드리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네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살아온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8년 늦게 출발해 또래 교사들보다 앞서기까지 남모르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견디는 힘 또한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언제 방송에 입문하셨나요?

성신여사대에서 불어를 전공하던 4학년 때 1975년 12월 KBS 공채 3기로 입사해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참 재미있게 활동했는데, 1978년 5월에 1년 선배인 이명용 아나운서와 혼인하며 그 해 7월에 퇴사했습니다.



1976년 가을 <가곡의 밤> 원주 공연 사회를 본 채영신 회원과 방송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왜 굳이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셨나요?

중학교 때 옆집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그 집 아이 과외를 가르치며 교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사범대로 진학했지요. 아나운서를 그만둔 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어교사 자리는 많지 않은데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초등학교 교사가 더 좋겠다 싶어 1980년에 임용고사를 보아두었지요. 1983년 서울 동작구 대방초등학교가 첫 부임지였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교사답게 차별화되는 교육방침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학생들에게 바른말 고운 말 쓰기를 통해 사회 적응능력을 길러주고 싶었고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수업개선연구교사연구회 회장을 맡아 모범수업을 공개하고 연구집을 발간하는 등 수업방법 혁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8년에 인성교육으로 석사, 2004년 학습부진요인을 연구해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직에 입문해서도 EBS 출연과 집필, 지역교육청 홍보 내레이션, 교육사랑 음악회 사회 등 아나운서 능력도 발휘하며 33년 가까이 교사생활을 해왔으니 전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목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2000년도에 맑고 밝은 교육풍토 조성 우수 실천 사례 보고서를 제출해 최우수 교육부장관상, 2009년에 모범 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서울시교육청 컨설팅 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제35회 교육연구논문공모제에서 초등 교원의



시사뉴스저널 6월호는 스승의 날을 맞아 채영신 회원을 "마이크를 내려두고, 참스승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 인물로 다루었다.

교원 업무 정상화 인식 및 향상 방안 연구로 서울시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도 뿌듯한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이 기회에 가족과 취미 소개도 해주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는데 둘 다 금융 계통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맘이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월, 화, 목, 금 저녁에 테니스, 주말에 골프를 즐기구요. 또 월요일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석 달에 한번은 가곡 발표 등 운동과 음악으로 여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계발에 열심이신지라 정년퇴직 후에도 바빠 지내시게 될 것 같아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최고위과정(GLP: Global Leadership Program)을 끝내고 지금도 의사인 사위의 영향을 받아 서울대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AH: Advanced Healthcare management Program)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클럽회보와 KBS사우회보 편집위원으로 합류했는데, 어떤 일이든 제 힘이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6월 10일까지 입금 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이병열(전 KBS) · 성선경(전 DBS) 부부 100만 원



문복순(전 KBS) 20만 원

축하합니다

- 손석기(전 SBS) 6월 21일 오후 1:30 KBS를 딸 은경 양 혼인
- 김윤한(전 KBS) 6월 13일 오후 6:30 더베일리웨딩 딸 보연 양 혼인
- 엄지인(KBS) 5월 20일 득녀
- 이해수(KBS 청주) 5월 16일 회사원과 혼인
- 김하나(OBS) 5월 16일 세무사와 혼인
- 장수연(KBS) 5월 6일 득남
- 김선근(KBS 창원) 5월 3일 학원 강사와 혼인
- 전형운(tbs) 3월 14일 방송인과 혼인

조의를 포함합니다

임주원(전 MBC) 5월 2일 장인상

수고하셨습니다

- 방현주 6월 2일 MBC 아나운서국 퇴사
- 황수경 4월 20일 KBS 아나운서실 퇴사
- 이희옥 3월 31일 KBS 라디오국 정년퇴직

‘춘하추동 방송’ 블로그 개설 10주년

한국방송역사의 보물창고, 클럽회보도 볼 수 있어



이정춘 운영자

한국방송역사韓國放送歷史의 보고寶庫 ‘춘하추동 방송’ 블로그(사진 <http://blog.daum.net/jc21th>)가 10주년을 맞았다.

2005년 4월 24일, 당시 KBS사우회 이장춘 부회장이 회원들의 마음을 연결해 줄 요량으로 종합 인터넷 검색사인 엠파스(empas)에 방송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이 시발점이다. 1963년부터 1998년까지 KBS에서 기자, PD, 행정직을 거쳐 전산정보실장, 업무국장, 관재국장, 제주방송총국장을 지낸 이장춘 운영자가 그 무렵 (사) 한국방송인동우회 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활동의 폭이 넓어졌고, 엠파스가 폐쇄되며 2010년 2월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한 이래 지금은 매일 1000여 명이 찾는, 6월 10일 현재 누적 방문자수 175만여 명에 달하는 파워블로거가 되었다.

춘하추동 방송에는 JODK 경성방송부터 VOA 미국의 소리 방송, VUNC 유엔군총사령부방송, AFKN 미군방송,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종편 3사까지 방송의 역사와 방송인물은 물론 각종 방송가 소식들이 망라되어 있고, ‘초창기 방송 역사는 아나운서의 역사’이듯 (사) 한국아나운서클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아나운서클럽 카테고리에서 클럽회보도 볼 수 있다.

아나운서클럽 박종세 고문은 블로그 개설 10주년을 축하하며 “춘하추동 방송에는 흘러간 세월 속에 담긴 소리와 영상을 감상하며 지난날을 회상하는 감동이 있다.”라고 칭송했고, ‘청사 없는 방송국의 연봉 없는 방송국장’이라고 명명명한 이정부 회원은 방송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 그들의 애기를 담아주고 싶어하는 이장춘 운영자의 동료애와 방송인의 사명감에 감사와 존경을 보냈다.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지금의 내가 본래의 나보다 얼마나 더 부풀려졌는지 새삼 깨달았다

차인태(전 MBC) 부회장

숨길 것도 아니지만 자랑할 것도 아닌 일로 이 글로 씁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로 인해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으로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년여, 두어 차례 큰 고비를 넘기면서 저의 병상일지는 시작됩니다.

1) 2009년 10월 초하룻날 밤, 40도가 넘는 고열, 호흡 곤란 등 견디기 힘든 급성폐렴 증세로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간 것이 저의 투병생활의 시작입니다. 흉관삽입(폐에 물이 참)을 비롯한 2주간에 걸친 정밀 종합검사 끝에 <B세포 미만성 악성 림프종양>이라는 진단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입관선 계통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악성종양이 심장과 폐 사이에 파리모양(방울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어 수술로는 불가능, 항암 주사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아홉 차례에 걸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심장내과(부정맥), 종양내과, 혈액내과, 내분비내과(스테로이드로 인한 혈당치 상승)의 협진치료 결과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길고 지루한 암 병동에서 보낸 16개월의 생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몹시 피로했습니다. 백혈구수치를 비롯한 면역력이 툭 떨어지면서 체중이 11kg이나 급격히 줄고 미각을 잃었습니다. 입안이 험고 헛바늘이 돋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량 식사를 위한 배식 밥 차의 바퀴소리, 구토 등 빔과 소리, 냄새에 극히 예민해지면서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기력을 차릴 수 없어 일어나 앉는 것, 세면장 출입도 집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MBC 견학 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한 차인태 부회장

1944년 평북 벽동 출생, 1968년 MBC 입사, 아나운서 실장, 편성이사, 제주문화방송 사장, 제11대 대한민국ROTC 중앙회장,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학부장 겸 교수,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장 겸 평안북도 지사,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석좌교수, 대통령 위촉 통일교민회의 고문, (주) MBC 나눔 고문,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병실 천장을 보고 있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일 밤이 또 다른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24시간 수시로 진행되는 혈압, 호흡, 맥박, 혈당 체크와 간호사들의 신발 끄는 소리조차 가늠할 정도였습니다.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흔히 '은 밤을 하얗게 뜬 눈으로 지새운다.'라는 문학적 표현이 얼마나 현학적이며 감상적이며 어찌 보면 사치스런 표현일지 모릅니다. 약물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내세울만한 믿음이 아니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나이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다른 간구와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실 안 보조침대에

서 하루도 빠짐없이 웅크린 채 곤하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일었습니다.

본격적인 항암 주사 치료가 시작되면서 말씀으로 위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커다란 위로와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숨쉬기조차 힘들 때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창밖에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40대 주치의의 말대로 '완치 가능성이 40%라 long term으로 가야하는' 암 치료과정에서 힘들었던 건 무엇보다 저의 자존감 상실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오는 것일까? 왜 나여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항암 주사 통증보다도 이유 없는 허허로움과 외로움, 나 자신에 대한 원망, 서글픔, 부끄러움, 허탈함, 화남, 실망감,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폐 끼침, 특히 4남매의 만이로서 3남 1녀, 부모님, 모든 식구들의 나이를 합치면 316살, 이들의 식탁기도를 생각하면, 죄송스러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기력함 등등이 림프종양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6년여 아홉 차례 수술과 항암 주사 약물치료 받을 때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다
완치 가능성이 40% 정도입니다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아내의 헌신에 九顛十起의 기적을 이뤄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성경 말씀과 부모 자식 생각하며 큰 힘을 얻었다

특히 4차와 5차 사이 항암 주사 치료 가운데 갑자기 찾아 온 중환자실의 시간(1주일, 혈압 60/40) 등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은혜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기도와 함께 부모님, 아이들, 손자손녀를 생각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이름 모를 청년들의 찬송 봉사 사역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새벽 여섯 시 반쯤, 강남 세브란스 암 병동 복도 끝에서 찬송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게는 2~3명, 많게는 7~8명의 20대 젊은이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천사의 음성으로 입원 환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교회 예배와 수련회, 교회 집회에서 맛볼 수 없는 감사한 찬송들은 양팔에 주사 꽃고 휠체어에 앉은 채 입원실 복도에 나온 나에게 눈물의 간증시간이요, 감사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암 병동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모두 아홉 차례의 항암 표적주사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약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성탄예배, 신년예배, 부활주일 지내고 퇴원, 자가치리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의 협진 노력으로 림프종양은 일단 치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관해' 상태입니다. 채혈, 가슴사진, MRI, C/T, PET 등 검사 결과 종양은 모두 제거되었으나 앞으로 꾸준한 치료와 섭생,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당부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①의학의 발전에 따른 진단, 시술, 협진을 통한 종합적인 치료 ②아내와 가족의 평상심 유지와 헌신적인 보살핌 ③환자 본인의 의지와 치료에 대한 확신 ④꾸준한 섭생과 운동을 통해 터널 끝을 지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2014년 3월 갑자기 심장에 이상증세가 생겨 강남 세

브란스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초음파와 폐기능검사 등을 거친 후 흉부외과 주관으로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넘어가는 판막치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약 22cm 절개하여 6시간에 걸쳐 기능이 저하된 대동맥 판막을 조직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 목 부위 pipe 제거 - 흉부 tube 제거 후 일반 병실로 옮겨 순조롭게 회복되어 정기적인 점검과 항생제주사를 병행하며 퇴원 후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6월 말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잠 잘 때 주기적인 땀, 38℃ 내외의 열감 등 증세가 나타나 검사했더니 시술한 심장판막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견되었습니다. 체내의 모든 균형이 깨어지고 간수치 상승, 패혈증 증세로 심장 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3월에 시술한 판막 뒤쪽에 심한 세균감염 증세로 재수술이 급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의료진 협의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轉院 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 후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의 집도로 '감염성 심내막염'과 '심장판막치환 재수술'을 실시했습니다. 2014년 7월 4일 14시 42분부터 2014년 7월 5일 2시 15분까지 12시간에 걸친 절야 수술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시험하시고 그의 낡은 죄 깨끗하게 하셔서 진정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시오. 주님! 주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쁘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깜깜하고 조용한 수술방 앞 대기실에 혼자 앉아 눈물로 간구한 아내의 기도문을 그의 수첩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수술방 불이 꺼지지 않자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차라리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매달렸답니다. 아내의 헌신에 감사할 뿐입니다.

6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의 끈질긴 노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순환기내과, 안과, 영상의학과 등의 협진·도움이 컸습니다. 부정맥증상, 위통, 위 쓰림, 신장수치 이상과 이노제, 포도상구균 발견과 염증수치 상승, 전해질 이상, 발열, 오한, 구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특히 '섭망', 활동이 정상 이하로 저하되는 과소활동(hypoactivity)형 섭망증세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부정기적으로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삶의 의지나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숙면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내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한동안 경험했습니다.

추기 / 중보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중보 : 합심해서 기도로서 도와주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대접받았던 것이 본래의 내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많은 것들, 겪고 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또 방송인 30년, 공직자와 교수로 살아 온 15년을 되돌아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또 다른 자만이요, 제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헬루병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믿습니다. 이처럼 귀한 육체적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 시간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아프고 위중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분들께 조그마한 희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긴 터널도 결국 밝은 햇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내려놓음(放下)을 실천하십시오. 물론 본인의 의지, 믿음-신앙, 신심, 의사, 간호사, 응급실, 이송원 등등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귀가 얇아지지 마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